

3장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제 3장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 3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 6 혀는 곧 불ियो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 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 18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IV-3. 혀가 짓는 죄에 대하여 3:1~18

1. 특히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혀를 잘 조정할 것 3:1,2

사도는 1장에서 소개한 중심 주제를 계속한다. 그는 신자들에게 “심기운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삶의 습관을 갖도록 촉구한다(1:19,21,15). 이런 훈련의 결과로 “온유”(1:21),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치 않음(2:1~13), 참된 믿음(2:15~26)이 생길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조절할 필요성을 더욱 긴요하게 할 것이다(1:19,26; 2:12).

-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골레 씌우리라”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무익하고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질과 말에 있어서 잘난 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혀를 사용하여 남을 비난하고 명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즉 항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언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또 우리 자신의 판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생들같이 되려 하지 말고 오직 배우는 자의 태도로 겸손하게 말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치고 싶어 하는, 스스로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선생이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들로서 헬리어 ‘디다스칼로이’ (didaskaloi)의 어원처럼 ‘남을 깔보는 사람’ 들을 의미한다.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게 되는데 만일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은 거짓교사로 전락해서 그에게 배우는 많은 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이다(마 15:14; 벧후 2:1).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 일찍이 예수께서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마 12:37).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을 절

제할 능력을 지녔음을 뜻한다(Lenski).

혀를 조절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과업이지만, 만일 그가 그의 말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정도까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온 몸” 은 안전하게 통제된다. 왜냐하면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덕은 또한 자기의 모든 행동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비유들로 잘 설명되고 있다.

[최고의 선물 중의 하나]

“말의 달란트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다” (원고 92, 1899).

[혀를 재갈 먹이는 힘]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혀를 재갈 먹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급하고 노한 말을 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특별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입술로 범죄 하지 않았다. 참을성 있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는 비웃는 자들, 그리고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들의 기롱을 받아들였다. 그는 화를 내면서 응수하지 않고,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를 노래하기 시작하셨다. 그의 동료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분과 함께 찬미를 불렀다. 만약 오늘날의 남녀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좇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리뷰 1904, 5, 26)

“어떤 사람은, 내가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자제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나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세심한 주의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큰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깨닫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자신

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해야 한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2).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에 너무 접근해 살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사업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 온 동일한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어야 하고,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견디고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행동과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다.

사단의 공격을 저항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열렬하고 꾸준해야 한다. 그는 우리를 바른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자 힘과 기량을 다한다. 그는 우리를 해하거나 멸망시킬 기회를 찾기 위하여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있다. … **사단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그의 불로 된 창을 던지는데 쓰는 기구는 흔히 우리 자신의 가족들이다 …**.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족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단이 이용할 수 없도록 생활하는 것이 모든 가족들의 특권이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우리의 간교한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열렬한 기도와 불굴의 믿음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증언 308)

**“그리스도의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승리는 자신에 대한 통제가
다. 우리의 선천적 성향들은 제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대로 이길 수 없다.”** (4증언 235)

2. 혀를 잘 사용한 경우와 잘못 사용한 경우의 예증들 3:3~12

3.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말의 재갈의 비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짐승과 같이 사납고 분방한 요소가 많다. 또한 이런 몸 쓸 기질이 대부분 입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 어거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주인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듯이 어거되지 않은 혀도 그 주인에게 똑같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죄를 피하는 것]

“모든 영혼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극시킬 일들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일들이 닥칠 때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약이 오른 정신을 진정시키고, 혀를 제어하고,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배운다.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받을 것이지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고귀한 단장은 성급하고 분별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동정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누군가 불쾌한 정신을 나타내면 방심한 심령 속에 걱정이라는 ‘마귀’를 틀림없이 깨워 일으킬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분노는 강화될 필요가 없고 재갈을 물려야 한다. 제어되지 않은 인간 본성에 불을 붙이는 것은 작은 불꽃이다. 쟁투를 불러일으킬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악을 행하기 보다는 악을 참도록 하라**” (서신 117, 1899년).

[죄를 품는 것]

“그리스도를 좇는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아부정을 실천할 것이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좇으면서 동시에 이기적이며 탐욕스런 계획을 수행하려고

피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가진 것과 동일한 특권을 가졌다. 그는 실제적 경건을 명백하게 제시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을 동일한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그가 명백한 진리를 항상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 착수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에서 흠을 찾고 그분의 분명한 가르침들을 비평했다. 품성이 변화되기전 그는 자기 사랑과 자아 존대와 돈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있었다**” (리뷰 1894, 8,21).

(약 1:14,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의 키의 비유]

큰 배도 작은 키를 바로 조종함으로써 잘 운전할 수가 있다. 키가 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듯이 혀도 온 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지체이다. 그러나 키를 올바르게 조종할 때 그 배가 바로 운전되어 나가듯이 혀를 바로 사용함으로 그 사람 전체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비록 키가 배를 조종하지만, 키를 조정하는 사람은 사공이다. 이와 비슷하게 비록 혀가 온 몸을 어느 정도까지 지시하지만, 혀도 또한 의지에 의해 지시받는다.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재갈과 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과 혀의 작음을 비교하고, 혀가 선 혹은 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숲이 크다고 해서 작은 불꽃이 일으키는 파괴를 막을 보증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비판적인 혀가 야기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 혹은 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사용만 잘한다면 실생활에 유익한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재난의 원인이 된다. 작은 불꽃의 파괴력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혀의 잠재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교인들은 파괴적인 언사를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서 분출되는 파괴적인 불꽃을 부추기는 일도 피해야 한다. 개인의 생애 혹은 교회의 “바퀴” 는 분노와 잘못 선택된 말에 의해 종종 불타오른다. 여기서 “생의 바퀴” 는 생의 ‘행로’ , ‘일생’ 의 의미이다. 혀가 지옥의 불로 달구어졌을 때는 분노와 미움만을 일으키고 사단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조화, 화평, 우정을 깨뜨리는 “혀” 는 사단의 조종 아래 있는 의지가 유발시킨다(마 13:25~28).

*서부 아프리카의 멘데 족은 분노를 말할 때 '배인 마음'이라 하고 미스키토 인디언은 '쪼개는 마음'이라 한다. '쪼개는 마음'은 분노의 주체가 당한 불의의 결과일 뿐 아니라, 내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한 적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멕시코의 치이파스에 초트칠 조는 "분노는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는 것" 이라고 한다. 이것은 분노를 느낄 때 어떤 뜨거운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은 우리 감정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경 근처에 거주하는 코놉 족은 분노를 '붉은 영혼'이라 한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던 '붉은 몸 속'이다. 분노한 사람의 붉은라푸르락한 얼굴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붉은 영혼이 몸 밖에까지 비치는 것이다.

서부 아프리카의 맛시 족은 분노를 '썩는 마음'이라고 한다. 분노로 이글이글 타는 가슴은 곧 썩어버린다. 우리말에도 "속썩는다"라는 표현이 있

는데 분노를 삭히는 감정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대들은 모두 그대들의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대의 생각과 행동에 세워진 파수병이 없는 것이 분명해지자마자, 그대들은 서로를 좌절시키고 그대들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확실한 경우가 되게 한다. 그대들 둘 모두 성급한 말과 행동을 촉발시키는 성급한 정신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그릇된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게 되는 적개심은 사단의 정신이며, 심대(甚大)한 도덕적 악으로 인도한다. … 그대는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말해진 단 한마디의 말로 결코 잊혀지지 않을지도 모를 상처를 친구들의 가슴에 남길 수도 있다. 자제를 행사하지 않는 한 그대들은 가장 불행한 부부가 될 것이다. 그대들 각자는 그대들의 불행한 생활을 상대방의 결점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비난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칭찬과 찬사의 말을 해주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라.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불유쾌한 것들을 다 털어놓는 그들의 거리낌없는 습관을 칭찬하여 말할 것이다. 그들은 질책과 흠을 찾는 말로써 그들의 성난 정신을 폭포수처럼 완전히 다 쏟아 놓는다. 그들이 더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더욱 흥분되며, 그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더욱 거친 말을 불러일으키는 성을 돋굴 것이다. 그리하여 급기야 작은 문제가 큰 불로 타오르게 된다. … 단호하게 그대들의 생각, 그대들의 말, 그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을 시작하라. 그대들 중 어느 누가 적개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거든, 홀로 가서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라.

각각의 정욕은 개화된 양심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4중언 243p).

“소식을 전해 주면 나도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해를 끼치기 좋아하는 혀, 지껄여 비밀을 누설하는 혀를 사도 야고보는 지옥의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횃불을 각 곳으로 퍼뜨린다. 비방의 행상인은 그가 무고한 자를 중상한다는 것을 조금인들 염두에 두겠는가? 비록 그가 무거운 짐에 눌러 이미 가라앉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희망과 용기를 파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악한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 그대들은 사단이 들어오도록 스스로 문을 열었다. … 시기하고 복수하기를 좋아하는 혀는 그들 자신의 생각에 맞도록 행동과 동기를 채색했다. 그들은 검은 것을 희게, 흰 것을 검게 보이게 했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항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대들은 그에게 불리한 모든 소문을 수집하여 그의 명성을 파괴하고 그의 유용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 만일 주님께서 그대들이 그대들의 형제에 대하여 나타낸 것과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신다면 그대들은 무자비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대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나는 없을까 두렵다. 이 극악한 마력이 힘을 잃어버릴 시간이 왔다. …

우리가 우리 형제에 대한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을 간직하게 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벼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라고 대답했다(시 15:1~3). **만일 각 사람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말해 주는 자들이 유리한 기회에 그의 결점도 마음대로 널리 알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험담의 세계는 예방될 것이다. …우리는 나쁜 소문을 성급히 신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흔히 질투나 오해의 결과로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과장이나 사실의 부분적 표현에서 나올 수도 있다. 질투와 의심은 일단 자

리 잡도록 놓아두면, 영경귀의 관모(冠毛)처럼 스스로 자신을 멀리까지 퍼뜨린다. ...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말로 충만하여 미늘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와 같이 하나의 의심, 하나의 비난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져질 수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방해를 받고 그의 유용성이 파괴된다. 어떤 종류의 짐승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동료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그는 즉시 엄습당하여 그의 동료들에게 갈갈이 찢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이 똑같은 잔인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죄가 적은 다른 사람들을 돌로 치는 바리새인적 열성을 나타낸다.** 그들 자신에게서 주의를 돌리거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큰 열성이 있다는 신임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5 증언 57-8)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인간이 길들인 야생동물 네 종류(7절)와 인간 스스로 길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혀를 예리하게 대조하고 있다. 이것은 혀가 결코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길들일 힘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동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혀를 길들일 힘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훈련되지 못한 언사로부터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선포한다.

“쉬지 아니하는 악” 을 KJV에서는 “다스리기 힘든 악” 으로 번역하였다. '쉬지 않는다' 는 것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Lenski). 그러나 악한 세력들에 의해 충동된 마음으로 조종 받을 때만 혀는 악이다. 사람이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말을 제어 하시도록 하지 않을 때 그의 혀는 악의 도구로 역할을 한다. 한편 “죽이는 독” 은 '죽음을 초래하는 독' 이란 뜻으로 독사의 독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다. 즉 독이 인간의 육체에 작용하는 것처럼, 혀는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에 영향을 끼친다. 신뢰, 화평, 우정의 상실은 분명히 성급하고, 분별없는 혀로부터 기인한다(시 140:3; 롬 3:13).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축복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며(마 5:44,45), 그리스도 자신도 사단에 대하여 “훼방하는 판결” 을 쓰지 않으셨다(유 9절). 저주는 미움에서부터 솟아나며 “우리 형제들을 참조하던 자” (계 12:10)인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람이 “두 마음” 뿐 아니라 “두 혀” 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주와 축복의 혼합물은 그 축복이 위선임을 암시한다(잠 18:21).

다시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연대감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 있는 연합에 호소한다.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복종시킨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

하실 것이다. 실제로 혀가 길들여지기 전에 먼저 생각들이 굴복되어야 한다(고후 10:5). 그러나 생각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복종시켜야만 한다.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어떤 샘도 같은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같이 분출되는 것은 없다. 비록 샘은 무생물이지만, 그 흐름은 천연계의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본성의 법칙과 조화되게 행동해야 하지만 터무니없게도 인간의 행동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 7:17,18,20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이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유실수들과 샘물들은 그들 각각의 형질에 따라 생산한다. 다른 어떤 결과도 기대되지 않는다. 야고보는 여기서 저주하고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회심한 사람이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제시한다.

“나는 그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

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대는 요구 사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라. 영감의 사도가 여기서 말한 요구 사항에 응하였던가? 나의 삶과, 세상에 대하여는 죽음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다는 것을 증거하였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빠졌는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가는가? 그대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지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상, 본질적으로 사악한 것을 알지 못한다.

“본성적인 기독교인!” 이 기만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 옷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상적인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경험과 수난, 극기와 자아 희생의 삶에 관하여 실험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자기 의는 누추한 누더기와 같다. 그대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대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 생명의 활기 속에 행하던 사람이 변화—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묘사됨—를 받은 뚜렷한 증거가 되는 열매들이 열거되어 있다. 살아 움직이는 삶에서 죽음으로! 얼마나 대조적인 비유인가! 여기서는 속일 수 없다. 그대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쉬지 말라.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 이 일을 그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라” (2증언 178p).

3. 혀의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행위에 대한 권면 3:13~18

[두 가지의 지혜]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까지 야고보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했으나 이제부터는 지혜와 충명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요구한다. 지혜와 충명에 대한 실천의 요구는 약 3:1,2과 연결해 볼 때 그리스도교 안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선생” 들에게 간청하고 있다.

지혜를 가졌다고 말만하지 말고 지혜가 담긴 온유함으로 지혜를 실천해 보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빈센트’ (Vincent)의 말대로 지식은 많이 안다는 것으로 교만하기 쉬우나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단계이므로 겸손과 온유가 그 표현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참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드러난다. 또한 참 지혜는 온유한 정신과 기질로 나타난다.

지식이 있다는 것과 그 지식을 적용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참 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우리들은 분노에 재갈을 먹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성냄도 참고 견디는 성품이야말로 참 지혜가 있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된다. 지혜는 온유함을 낳고 온유함은 지혜를 더해 준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백성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기적인 관심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생각 속으로 삼켜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의 권고의 강한 힘을 느낄 것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2중언544)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기심은 외형적으로는 숨겨질 수 있을지라도, 샘 속의 쓴 물 같아서, 어느 날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야고보는 주의 깊은 마음의 성찰이 항상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성취나 기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당파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자기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매혹시키려 한다. 그 같이 자랑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봉사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유일하고 건전한 토대이다. 지혜로워지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진리의 정신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진리는 삶의 방식에 있다.** 진리에 대한 이론은 그것이 진리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함으로 표현된 때에만 가치가 있다(요일 2:6).

*〈걸리버 여행기〉는 누구나 다 어려서 즐기던 이야기이다. 18세기 영국의 풍자적인 문인이었던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난쟁이 소인의 나라와 아주 큰 거인 나라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작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 수만 명의 목숨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일이 있다.

왜 이 작은 사람들의 나라인 소인국에서 싸움이 나서 수만 명이 비참하게 죽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많은 생명을 희생치 않으면 안되었던 것일까. 그 싸움의 발단은 삶은 계단을 깨뜨려 까먹을 때에 계란의 넓은 쪽 끝을 먼저 깨뜨려서 까먹느냐? 아니면 좁은 쪽의 끝을 먼저 깨뜨려서 껍질을 까느냐? 라는 문제 때문에 두 편으로 의견이 갈라져 결국에는 치열한 싸움이 되었

다는 것이다.

즉 한 편은 넓은 쪽부터 깨뜨려 까는 것이 옳다고 하고, 다른 편은 좁은 쪽부터 깨뜨리는 것이 맞다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다. 반면에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 글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토록 골몰하고 문제를 삼고 싸우기도 하는 일을 비웃고 풍자한 것이다.

정말 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참된 일을 진정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의 진실한 생애의 뜻으로 볼 때에는 별 것 아닌 것을 위해서 나의 정력과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신과 말과 태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고 용서 하지 않는 것 등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리뷰 1895. 3. 12).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이러한 지혜”란 온유함이 결여된 정신으로 진리를 저버리는 자들의 지혜를 의미하며, 그것은 위로부터 온 참 지혜가 아닌 거짓된 지혜라고 설명한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믿음을 인식했던 것처럼(2:17), 두 종류의 지혜를 인식한다. 죽은 믿음처럼, 이런 종류의 지혜는 단지 이름뿐이다. 그것은 약삭빠름, 논리적인 기교, 교묘한 논법이며 모두가 이기심에만 쓰

인다.

“세상적이요” : 이 거짓된 지혜는 세상적인 원칙과 동기에서 생기며 세상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다. 그것은 단지 가시적인 현재의 삶만을 기대한다.

“정욕적이요” : 세상적인 지혜는 타고난 인간 안에서 발생하는 욕망과 성향의 만족을 추구한다.

“마귀적이니” : 거짓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마귀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분명한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제 는 마귀의 우두머리가 된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지혜로 만족하지 않았다(겔 28:17). 결국 이 시기적인 정신은 그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 이 있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이요, “정욕적” 이요, “마귀적” 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인간의 세 가지 영적 원수들-세상, 육체, 마귀-로 이해하기도 한다.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난이 되고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크게 지체시키는 것은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악이다.**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결점을 찾는 것과 악한 추측으로 충만한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더욱 분명하게 약화시키는 길은 없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5-18).” (8중언242)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러한 시기와 다툼에도 순서가 있다. 시기심이 제일 먼저 발생하고 이것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다툼에 이어서 헛된 자랑과 거짓말이 따른다. 그리고 이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뒤따른다. 한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으며 따라서 죄악이 초래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 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악행만이 있을 뿐이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기심은 언제나 불행과 요란으로 이끄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결국 그 열매로 참된 성격을 드러낸다. 죄와 이기심은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심판석에 올라가 앉는 자]

“원수의 암시에 마음 문을 열어 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심사(心事)를 일컬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그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심판석에 앉는다. 그리고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인양 그가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 버린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이 정신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에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이다.

그대들 중 아무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거둬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대

의 영혼의 전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는 그들이 쓴 뿌리들이기 때문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니라” 라는 사도의 말은 참으로 진실이다. 어떤 기관이나 교회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격정을 휘저어 놓을 수 있을 것이요,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악한 누룩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의의 원수는 승리를 얻는다. 그 결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아주 효험이 없게 되는 것이다 “(리뷰 1895. 3. 12).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의 하나이다. 현인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잠 27:4)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약 3:16).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약 4:11). 그러므로 한 재판관 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고전 4:5)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조 385p).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것을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지혜를 말한다.

하늘에서 난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르다. 세상 지혜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리는 속임이 있는 반면 위로부터 난 참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1) 참 지혜는 성결하다.

“성결”의 헬라어 ‘하그노스’ (hagnos)는 ‘오염되지 않은’이란 뜻으로 이 특성이 첫 번째인 이유는 나머지 다른 특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 곧 오염되지 않음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또한 “성결”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히 깨끗하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참 지혜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위한 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세상적” 원칙들, 친구들, 목표들과는 별개인, 어떠한 죄의 모습에도 오염되지 않은 지혜이며, 오직 마음과 생활에서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한다.

(2) 참 지혜는 화평하다.

마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싸움과 다툼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화평을 바라기 때문에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진리 선포가 세상에서 논쟁을 일으킬 것이지만(마 10:34), 야기된 다툼은 진리를 지혜롭게 제시한 자들의 과실이 아니라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과실이라고 예언하셨다.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삶과 교리의 성결함을 결코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참 지혜는 관용한다.

“관용”이란 ‘자극 가운데서 참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지혜는 온화함이요 성이 나도 참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신사로 만들게 된다.

*사탄들의 회의가 있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없애 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한 사탄이 말했다. "성령의 제일 큰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니 사랑 하나만 없애면 그 외의 모든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탄이 또 말하기를 "그것보다 인내를 없이하면 사랑도 모든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는 참을 수 없이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니 모든 사탄은 일치 가결하여 성도에게 인내력을 없이하려는데 총력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참 지혜는 양순하다.

“양순”의 헬라어 ‘유페이세스’(eupeithes)는 ‘매우 유순한’이란 뜻으로 고집이 세지 않고 함께 일하는데 까다롭지 않은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한 일을 권하거나 악을 떠나라는 권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 지혜가 원하는 말까지 복종하는 그릇된 양순함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오히려 참 지혜는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적하면서도 선과 의,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하게 한다.

(5) 참 지혜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일반적으로 긍휼을 외부로부터 고통 받는 자에 대한 동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참 지혜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반영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인간의 외적 고통에 대한 것 뿐 아니

라 인간의 죄악이나 과실에도 베푸시는 긍휼이듯이 인간의 내적, 외적 고통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지혜를 말한다. 따라서 이 지혜에는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곧 불쌍히 여김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6) 참 지혜는 편벽됨이 없다.

“편벽”은 ‘동요함이 없는’, ‘불확실성이 없는’이란 뜻으로 취하는 행동방식에 관하여 불확실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익을 얻고자 자리를 다투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7) 참 지혜는 거짓이 없다.

참 지혜는 위장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이 지혜는 오직 신실하고 개방적이며 변함이 없고 통일되어 있으며 자체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올바른 민감성]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같은 사람들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비판과 의심과 불평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 버리라. 그리고 **그대의 신경을 바깥쪽으로 곤두세우지 말라**. 어떤 자들은 너무나 민감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대총회 회보 1903. 4. 1).

18.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불화를 화해시키는 자들이다.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부분적으로 이생에서 그리고 온전하게는 “평강의 하나님”(살전 5:23)의 왕국에 거하는 내생에서 화평의 열매를 맛본다. 이는 3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로서 야고보의 의도는 신자들간에 “화평”과 “의”를 이루라는 것이다. 이 둘은 참 지혜의 열매로서 거짓 지혜의 열매인 “시기”와 “다툼”에 대비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내재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는 선천적인 기질에 작용함으로 진리의 변화케 하는 능력이 변화된 품성 가운데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성화되지 않은 심령과 기질을 드러냄으로 그대들의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며 비그리스도적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경우와 모든 처지에서 족한 것이 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름 뿐이 아니고 실제와 진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칠 책임을 맡은 교사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품성을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게 하였는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약 3:17, 18)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부모194)

